



numbers
vol. 272

지방 소멸

약 20년 후 전국 모든 지역이 소멸 위험지역 진입!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한국인의 종교 인식
- ② 한국 어린이의 미래 희망 직업

2025. 1. 21.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약 20년 후 전국 모든 지역이 소멸 위험지역 진입!

소멸위험지수는 젊은 여성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지방 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마스다 히로야(2014)의 저서 「지방소멸」에 착안하여 개발되었다.

감사원이 2021년에 발표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에 따르면 2047년부터 모든 시군구가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당시 합계출산율 0.98명을 기준으로 한 전망으로 최근의 합계출산율(0.72명, 2023)을 반영하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번 넘버즈는 지역 인구 감소와 이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인구 소멸 환경 가운데 지역별 한국교회 교세 전망까지 살펴본다. 인구 구조의 지역별 변화가 한국교회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고민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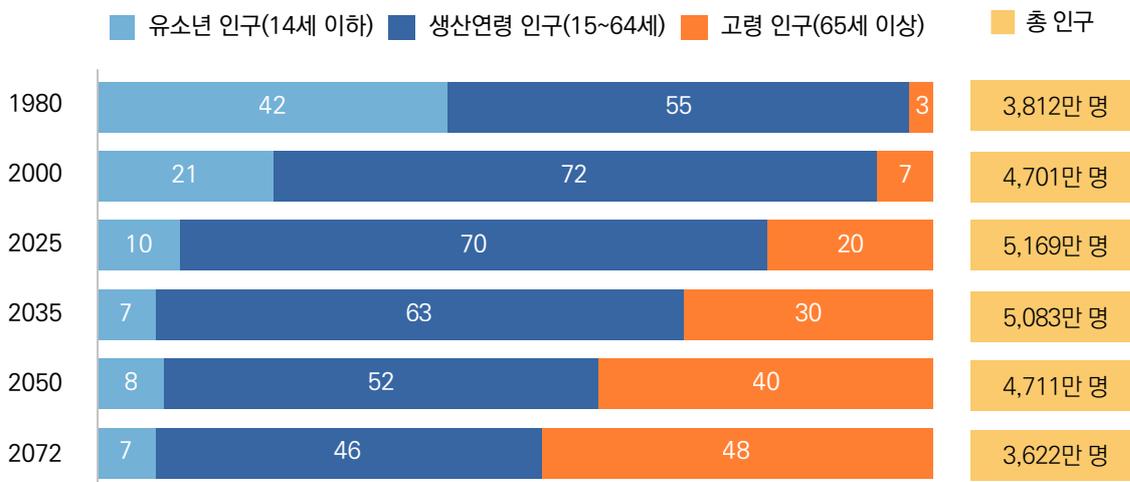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01

[인구 변화] 50년 후 노인이 인구의 절반 차지!

- 통계청은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2~3년 주기로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정점(5,184만 명)을 찍은 이후 하락세에 접어들었는데, 앞으로 약 50년 후인 2072년 인구는 3,622만 명으로 올해 2025년 대비 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2025년 20%에서 2050년은 40%, 약 50년 후인 2072년에는 48%까지 이를 전망이다. 2025년에서 2050년까지 기준으로 보면 총인구는 9% 감소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오히려 80%(1,051만 명→1,891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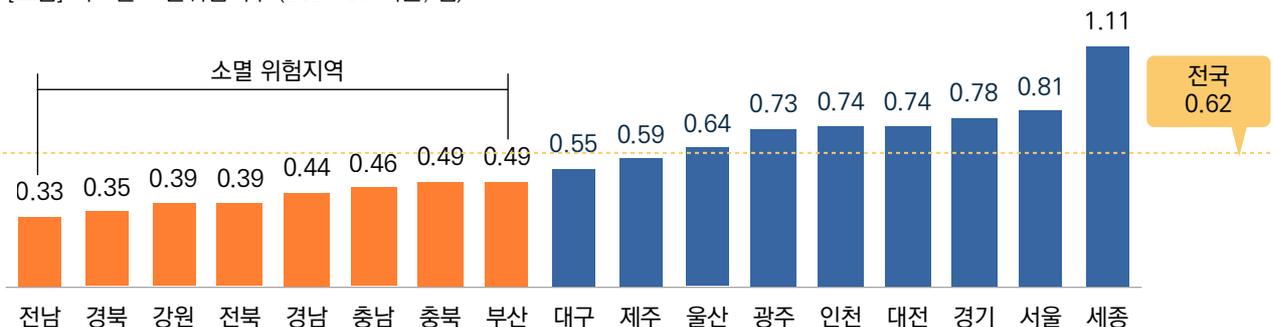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 2023.12.13.

02

[지방 소멸 현황] 부산,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 위험 단계 진입함

-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누어 산출하는데, 0.5 미만일 경우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한다. 소멸 위험지역은 2016년 처음으로 측정한 이래 매년 증가 추세이다.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17개 광역 시도 중 소멸 위험지역은 8개로 나타났으며, '전남', '경북', '강원', '전북'이 0.4 미만을 기록했고, 부산이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그림] 시도별 소멸위험지수 (2024.03.기준,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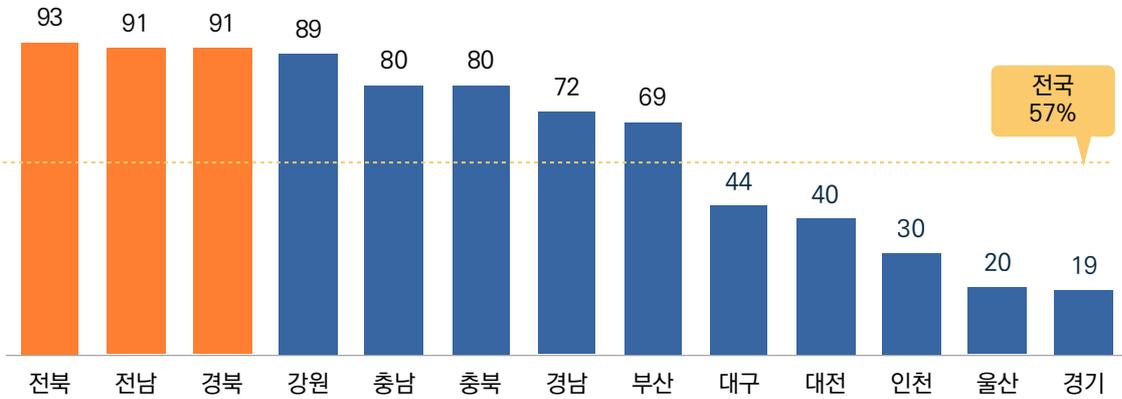
※출처 : 국가통계포털(www.kosis.go.kr), '주민등록인구통계', 2024.03.

Note) 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 인구 수 /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

2024년 기준, 전라/경북 지역 10곳 중 9곳 소멸 위험지역!

- 소멸 위험지역은 시군구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중 130곳으로 전국 57%이 이르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북이 전체 14개 시군 중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소멸 위험지역으로 확인되어 93%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과 경북은 91%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시도별 소멸 위험지역 비중 (시군구 기준, 2024.03.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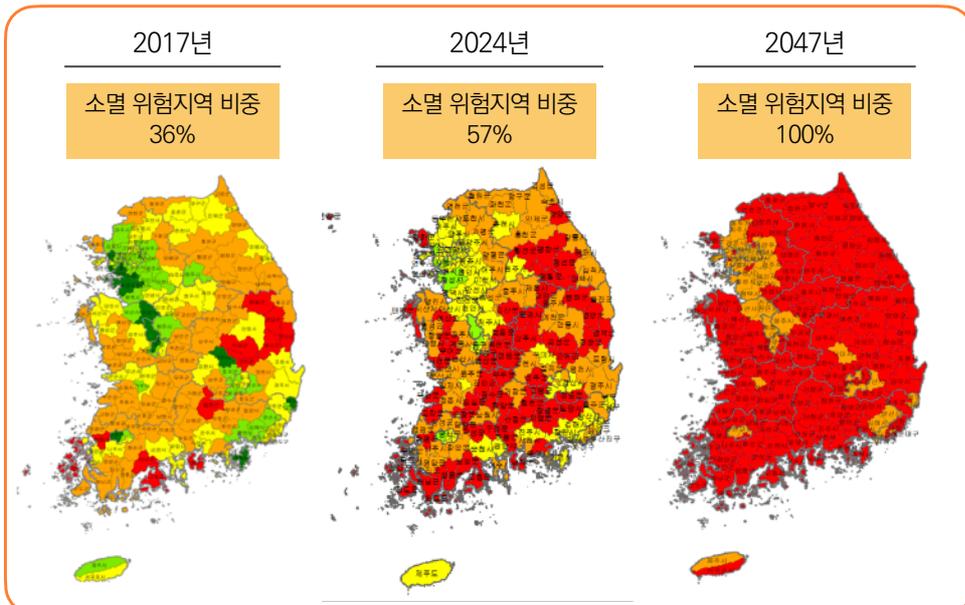


※출처 : 국가통계포털(www.kosis.go.kr), '주민등록인구통계', 2024.03.
 Note) 서울, 세종, 광주, 제주는 0%임

약 20년 후, 전국 모든 지역이 소멸 위험지역 진입!

- 감사원은 인구문제에 대한 장기 대응 차원에서 현 수준의 초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미래 지방의 소멸 위험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고용정보원과 함께 시군구별 향후 소멸 위험을 예측한 감사보고서를 2021년에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47년부터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큰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고령층 중심 사회가 되어 공동체의 인구 기반이 매우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시군구별 소멸 위험지역 현황 및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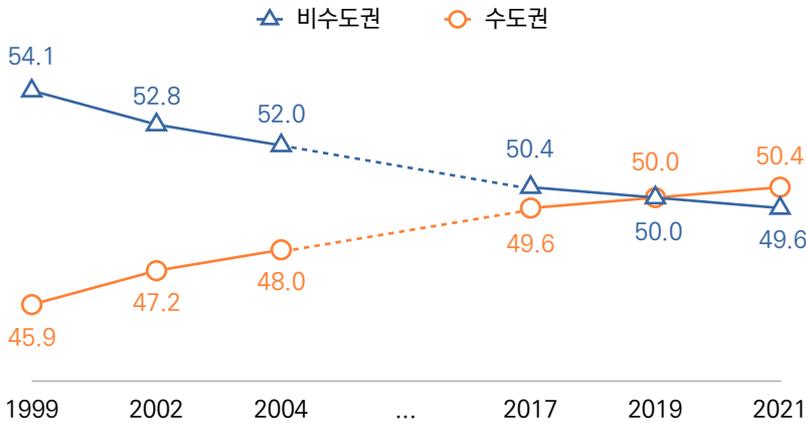
색상	명칭	소멸위험 지수	
빨강	소멸 위험 지역	소멸 고위험	0.2 미만
		소멸 위험 진입	0.2~0.5미만
노랑	소멸 주의단계	0.5~1.0 미만	
연두	정상	1.0~1.5 미만	
초록	소멸 저위험	1.5 이상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산업과 고용 2024년 여름호 '지방소멸 2024: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 2024.06. 감사원, '감사보고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I (지역)', 2021.07.

지방 소멸 위험 증가 이유, 수도권 인구집중 지속 증가 추세

- 이토록 지방의 소멸 위험이 증가하는 이유는 일자리, 의료, 교육 등 정주여건이 좋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도 한몫을 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는 2019년 이후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 그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

[그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비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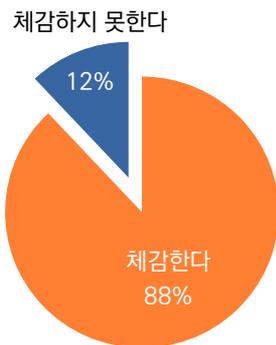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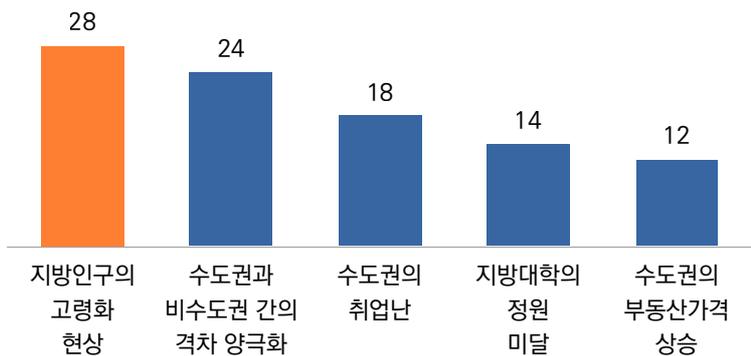
[지방 소멸 국민 인식] 우리 국민 대다수, 지방 소멸 위기 체감하고 있어!

-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우리 국민의 지방 소멸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를 살펴본다. 지방 소멸 위기를 체감하는지에 대해 국민 대다수(88%)가 '체감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지방 인구의 고령화 현상'(28%)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양극화'(24%)가 가장 높았다.

[그림] 지방 소멸 위기 체감도* (일반 국민)



[그림] 지방 소멸 위기 체감하는 이유 (지방 소멸 위기 체감자,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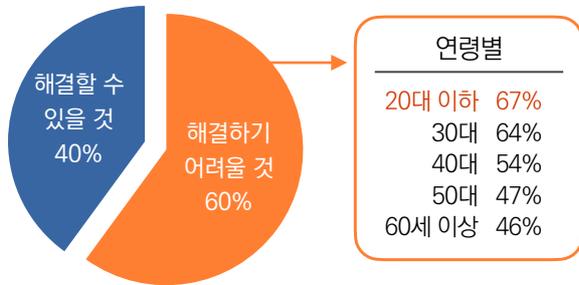
※출처 : 인구보건복지협회, '지방소멸 체감도 및 우선 지원책', 2022.10. (일반 국민 2,067명, 온라인 조사, 2022.10.11.~10.18.)

*4점 척도

우리 국민 10명 중 4명, '지방 소멸 위기 해결할 수 있을 것!'

- 이러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해 10명 중 6명(60%)은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해 비관적인 입장이 더 컸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의견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을 나타냈다.
- 그러나 40%의 국민은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림] 지방 소멸 위기 해결 가능성* (일반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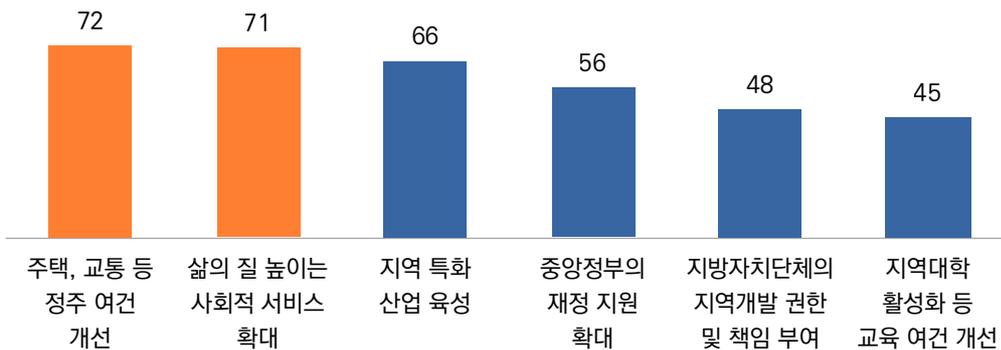


※출처 : 인구보건복지협회, '지방소멸 체감도 및 우선 지원책', 2022.10. (일반 국민 2,067명, 온라인 조사, 2022.10.11.~10.18.)
*4점 척도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대책, 경제/교육여건 개선보다 삶의 질 개선!

- 국민이 바라보는 지방 소멸 대응의 정책적 대안은 무엇일까? 한국행정연구원은 '인구 감소 시대의 국민이 바라보는 지방 소멸과 대응 정책' 이슈를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을 제시했다.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방 소멸 대응 정책으로는 '주택 및 교통 등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높이는 사회적 서비스 확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이는 지역의 인구 유입과 유출 방지를 위한 요인으로 전통적인 관점인 경제 및 교육적 여건 개선보다는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문화적 인프라 개선에 대한 의견이 더 높았다.

[그림] 지방 소멸 대응 위한 지속적 발전 정책 (일반 국민, '긍정적' 평가 비율*, %)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23 정책연구 국민 수요조사', 2023.12. (전국 만 19~69세 남녀 3,000명, 온라인 조사, 2023.05.03.~05.15.)
*9점 척도로 1~3점: 부정적, 4~6점: 보통, 7~9점: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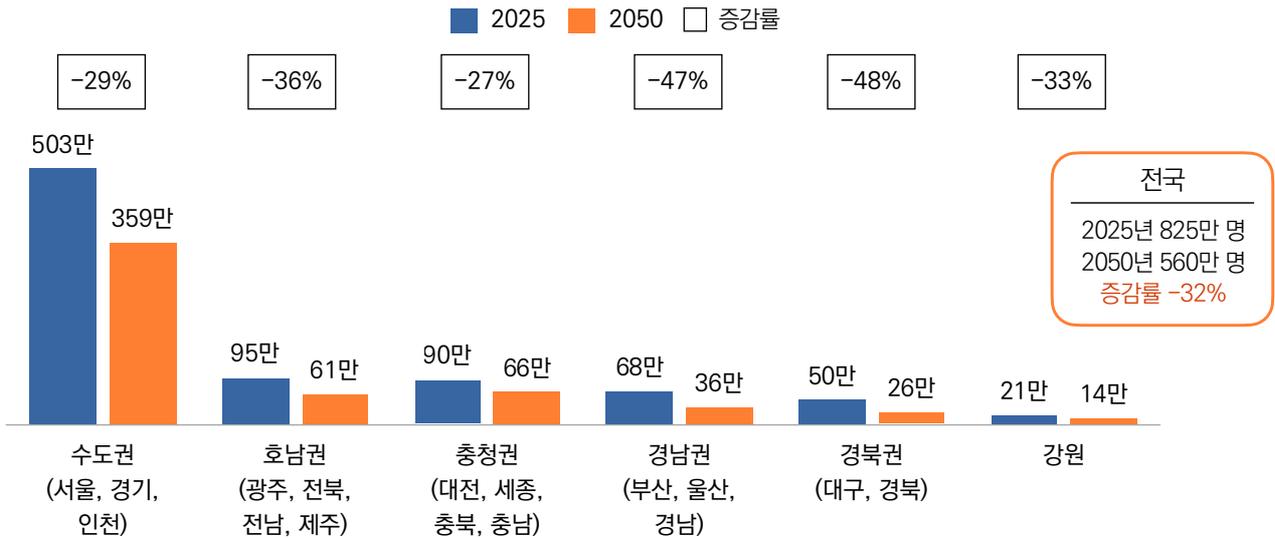
04

[한국 기독교 미래 전망]

이대로 가면 25년 후 경상도 지역 기독교인 수 절반 가까이 줄어

- 이러한 지방 소멸 위기 속에 한국교회 지방의 교세는 어떻게 변화할까? 목회데이터연구소는 한국교회총연합과 공동으로 2050년까지 한국기독교 인구수를 예측하는 '한국기독교 교세 추계' 분석을 최근 발표하였다.(넘버즈255호) 현재 한국교회가 놓인 조건과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2025년에서 2050년까지 기독교인 수는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경상도 지역의 감소율(47~48%)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권역별 기독교인 수 전망 (명)



※출처 : 한국교회총연합/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기독교 교세 추계 현황', 2024.09.10.

Note) 이 프로젝트는 한교총/목회데이터연구소가 조사전문기관인 엠브레인/연세대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교수팀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조사기간 : 2023.10.18.~2024.01.03.)

농어촌 기독교인 수, 앞으로 10년 정도는 감소하지 않아

- 대도시와 농어촌의 기독교인 수 전망을 살펴본다. 대도시 기독교인 수는 2025년 362만 명에서 2050년 225만 명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5년간 3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농어촌 기독교인 수는 대도시와는 달리 2025년 56만 명에서 10년 후인 2035년 59만 명으로 다소 증가하다가, 그 이후 2050년 48만 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대도시 vs 농어촌 기독교인 수 전망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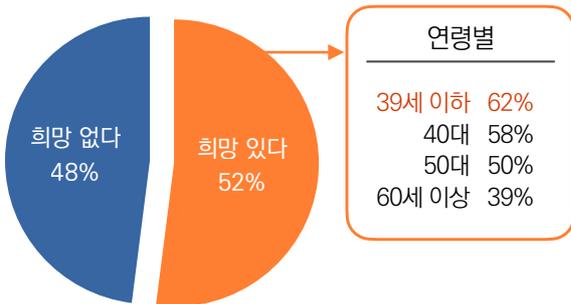


※출처 :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기독교 교세 추계 현황', 2024.0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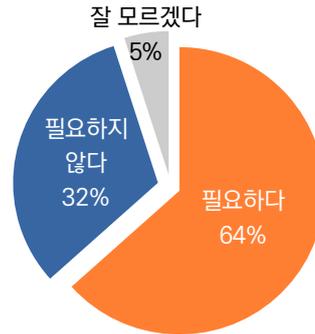
농어촌 교회 목회자 절반, '농어촌 교회에 희망 있다'!

- 농어촌 교회 목회자는 이러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농어촌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 하는지' 질문한 결과, 52%가 '희망이 있다'라고 응답해 절반 정도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희망이 있다고 응답 한 비율은 목회자 연령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앞에서 당분간 농어촌 기독교인의 증가 추세가 전망 되는데 이는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의 희망적 인식과 맥을 같이한다.
- 한편, '희망 없다'라고 응답한 목회자의 64%가 농어촌 교회의 '통폐합이 필요하다'에 동의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 어촌 교회의 생존전략 중 하나로 '통폐합'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림] 농어촌 교회에 대한 희망 여부
(농어촌 교회 담임목사)



[그림] 농어촌 교회 통폐합 필요성 인식
('농어촌 교회 희망 없다' 응답자)



※출처 :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농어촌 교회 실태 조사', 2023.1.27. (소속 농어촌 교회 담임목사 504명, 모바일 조사, 2022.11.9.~12.16)

이번호 요약

1. 약 20년 후, 전국 모든 지역이 소멸 위험지역 진입!

-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이후 하락세에 접어들었는데 2072년 인구는 2025년 대비 30% 감소할 것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4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감사원은 2047년부터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 이대로 가면 25년 후 경상도 지역 기독교인 수 절반 가까이 줄어!

- 현재 한국교회가 놓인 조건과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예측한 기독교인 수는 2025년에서 2050년까지 기준으로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경상도 지역의 감소율이 절반 가까이(47~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영상] 매년 증가하는 지방소멸위험지역 (한국고용정보원)

관련 성경 구절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11)

목회 적용점

넘버즈 창간호 주제는 바로 ‘인구 절벽’(2019.06.)이었다. 당시 인용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는 인구의 데드크로스(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시점)를 2028년으로 예상했지만, 현실은 2020년부터 감소가 시작돼 무려 8년이나 앞당겨졌다. 또한 정부는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약 378조를 투입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못 거두고 있다. 그만큼 인구문제는 심각하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넘어 교회의 목회 환경에도 커다란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시대의 흐름이 바뀔 때마다 교회는 늘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질문을 받아왔다. 이러한 변화는 불가피하게 교회의 미래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하는 과제를 던져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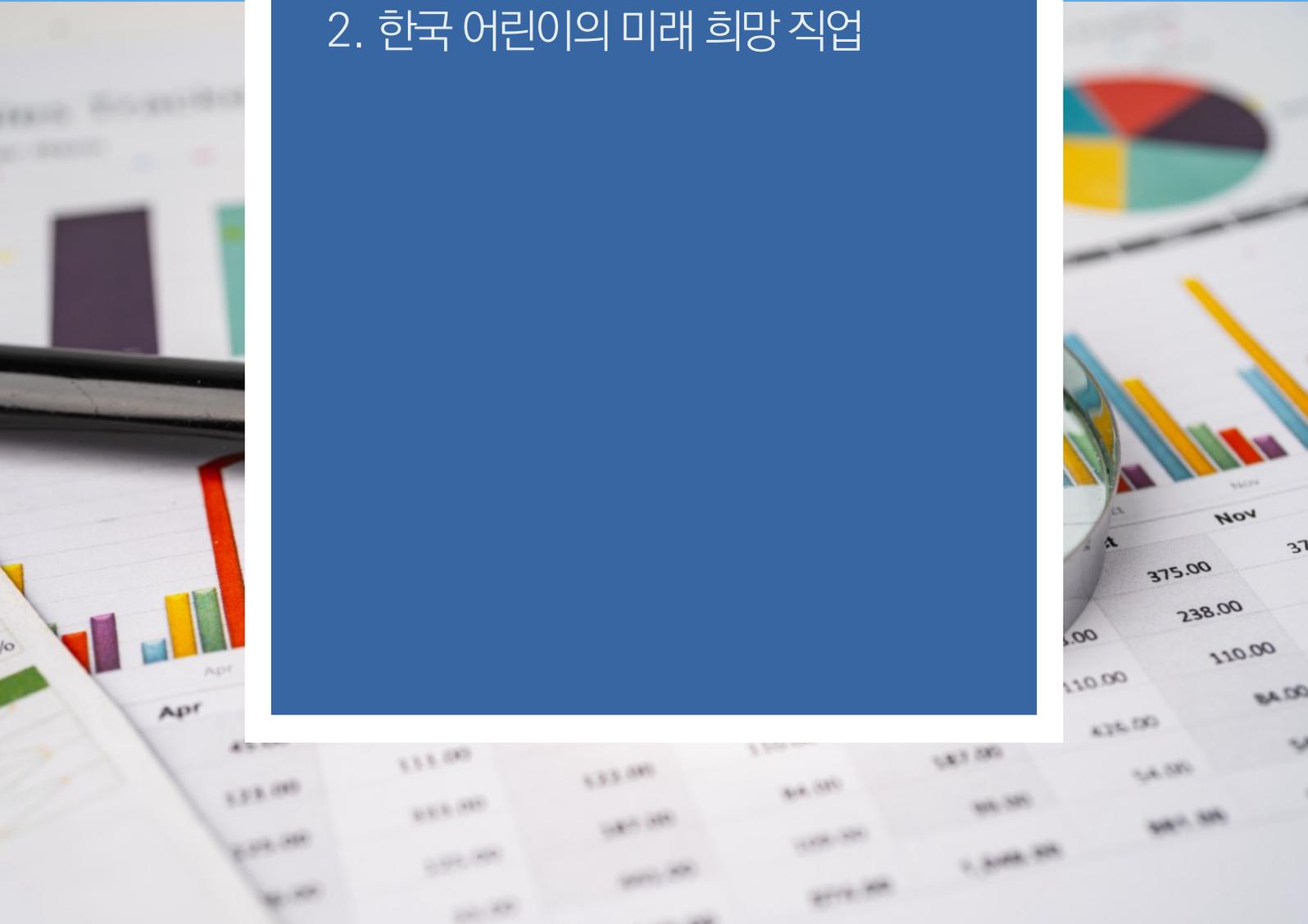
우선, 인구와 교인 수 감소 상황에서 교회는 더 많은 사람을 모으는 데 집중하기보다 청소년, 청년 등 한사람의 기독교 가치관/세계관으로 무장된 크리스천을 세우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신앙 수준과 생애 주기에 따른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성도들이 이전보다 더 성경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 소멸은 지역 교회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목회자들은 ‘선교적교회 특징’으로 영혼 구원이나 해외 선교사 파송보다는 사회적 봉사 등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사역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넘버즈 245호) 교회는 지역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하여 공동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고, 또 교단이나 도시교회의 지원을 받아 교회를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센터로 활용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친밀도를 높일 수 있다.

인구 감소 현상은 교회가 영혼의 질적 성장에 승부를 걸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일지 모른다. 이러한 시대적 도전 앞에서 교회가 제대로 응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한국인의 종교 인식
2. 한국 어린이의 미래 희망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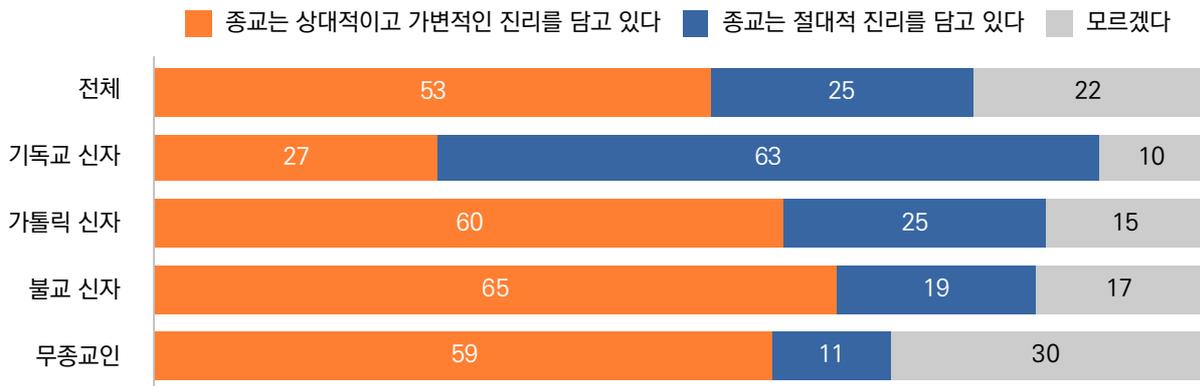




[한국인의 종교 인식] 기독교인 27%, '종교는 상대적이고 가변적'이라 생각

- 탈종교화 시대에 한국인은 종교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최근에 발표된 종교 인식 조사(한국리서치) 결과를 통해 한국인의 종교 인식을 살펴본다. 먼저 종교가 담고 있는 진리에 대해 '종교는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는 응답이 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종교는 절대적 진리를 담고 있다'는 인식(2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 기독교인의 경우 '종교는 절대적 진리를 담고 있다'는 인식이 63%로 타 종교인보다 월등히 높았으나, '종교는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는 인식도 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종교 진리의 절대성 vs 상대성 인식 (일반 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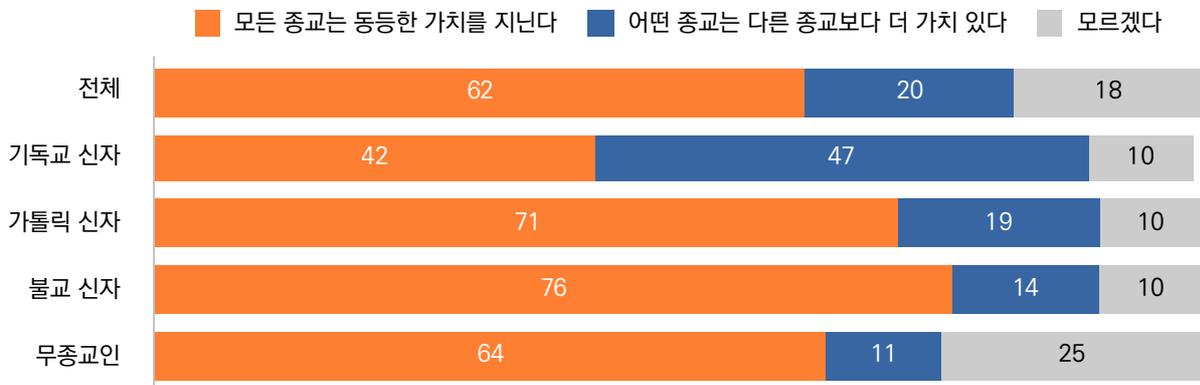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4 종교인식 조사, 종교 진리와 가치에 대한 인식, 종교의 개인적, 사회적 의미', 2025.01.15.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4.11.22.~11.25.)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기독교인 42%, '모든 종교는 동등한 가치 지녀'!

- 종교 간 가치를 비교하는 질문에서는, '모든 종교는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의견이 62%로, '어떤 종교는 다른 종교보다 더 가치 있다'는 의견(20%)을 크게 앞섰다. '모든 종교는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인식을 주요 종교별로 살펴보면, 기독교 신자가 42%로 가장 낮은 반면, 가톨릭 신자(71%)와 불교 신자(76%)는 평균보다 더 높았다.
-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의 다수가 종교 진리는 상대적이고 가변적이며, 모든 종교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다원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인의 경우도 상당수가 종교 다원주의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종교 간 가치 비교 인식 (일반 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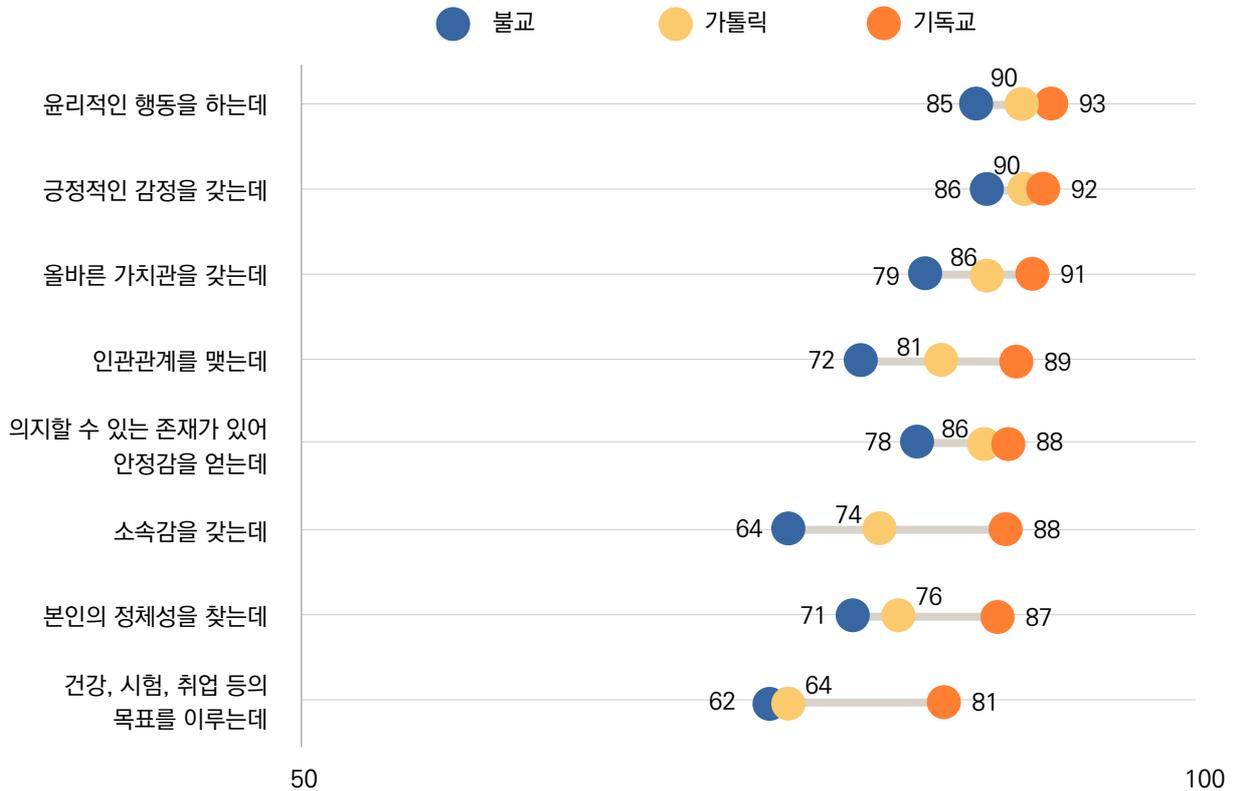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4 종교인식 조사, 종교 진리와 가치에 대한 인식, 종교의 개인적, 사회적 의미', 2025.01.15.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4.11.22.~11.25.)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기독교인의 종교 효능감, 타종교보다 높아!

- 종교를 믿는 것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종교별로 물어본 결과, 믿는 종교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기독교인은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데'(93%),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데'(92%),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데'(91%) 등 모든 항목에서 최소 81% 이상이 종교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다른 종교 신자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종교의 효능감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종교별 종교의 효능감 인식 (일반 국민, '매우+약간 도움된다' 비율*, %)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4 종교인식 조사, 종교 진리와 가치에 대한 인식, 종교의 개인적, 사회적 의미', 2025.01.15.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4.11.22.~1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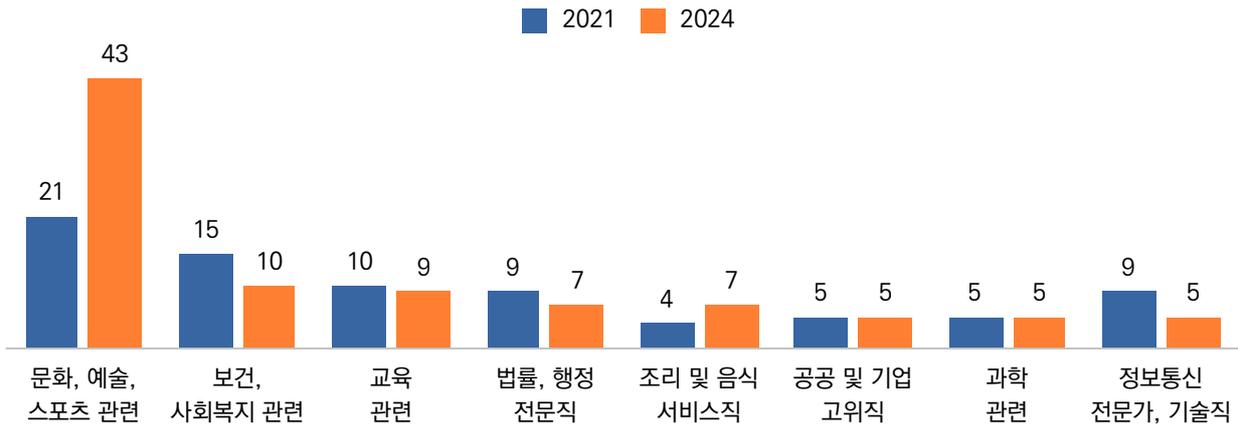
*4점 척도



[한국 어린이의 미래 희망 직업] 어린이 장래 희망, 연예인·운동선수 관련 직업 크게 증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어린이(초4~6학년) 대상 조사를 3년 단위로 진행하는데 보고서 내용 중 어린이의 장래희망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 장래 희망 직업으로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의 ‘문화, 예술, 스포츠 관련’직이 43%로 1위를 차지했으며, 3년 전 조사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2위는 의사, 약사 등 ‘보건, 사회복지 관련’직이 차지했다.

[그림] 희망 직업 (초4~6학년 어린이, 2024년 기준 상위 8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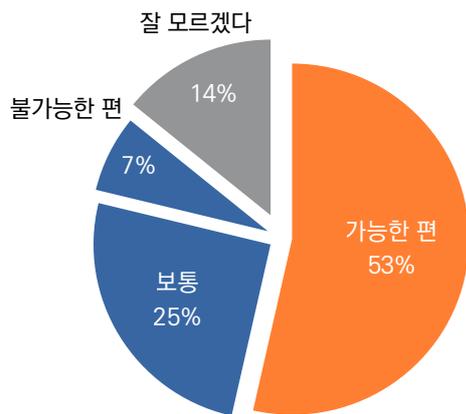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년 한국복지패널 조사 분석 보고서’, 2024.12.

Note) 문화, 예술, 스포츠 관련직: 가수/연기자 등 연예인, 작가/화가/감독 등 창작 예술인, 운동선수, 음악가, 건축가 등
보건,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의사, 간호사, 약사, 한의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종교인 등

어린이 절반 이상, ‘나의 장래 희망, 가질 수 있을 것!’

- 희망 직업에 응답한 어린이에게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전체 어린이의 53%가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해 절반 이상의 어린이에게서 장래 희망 직업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림] 희망 직업 획득 가능성 인식* (초4~6학년 어린이)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년 한국복지패널 조사 분석 보고서’, 2024.12.

*5점 척도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09호 \(2025년 1월 3주\)](#)

-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대선 결과 기대, 대통령 탄핵, 경제 전망 등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39호 \(2025년 1월 3주\)](#)

- 탄핵에 대한 의견, 탄핵 심판 속도에 대한 입장, 대선 후보 호감도, 대선 인식 등

사회 일반

[\[단독\] '기여형 급여' 수령 저소득가구 7%...실업·질병 땀 '빈곤 수령'](#)

한겨레_2025.1.14.

[역만장자 명단 작년 204명 추가...'하루 만원' 빈곤층 36억명](#)

연합뉴스_2025.1.20.

[2024 기부 경험 및 기부 문화 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5.1.14.

[독보적인 출산율 증가세 강남구... 고소득층 비율 높아서?](#)

조선일보_2025.1.14.

청년 · 청소년

[서울 고1, '수리력 보통 미달'이 10명 중 4명](#)

국민일보_2025.1.14.

['그냥 쉬는' 청년들 1년 새 12% 꺾춤...취업해도 '불완전 고용'](#)

연합뉴스_2025.1.19.

노인

[\[단독\] "노인정서도 텃세·따돌림"...경로당 7만개지만 노인 93%는 안간다](#)

매일경제_2025.1.13.

[상품권 사고 적금 들고 ... 경로당 회장 씹짓돈 된 월세 6200억](#)

매일경제_2025.1.16.

[경기도 노인에게 물었더니 "노인 기준은 71.8세"...45.2%가 "취업 중"](#)

조선일보_2025.1.20.

[서울 시민 71% "70세는 돼야 노인"](#)

조선일보_2025.1.14.

경제 · 기업

[계엄, 일자리도 덮쳤다... 취업자 5만명 급감](#)

국민일보_2025.1.16.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평균 금융자산 1억인데... "결혼할 땐 2억, 노후엔 9억 필요"](#)

조선일보_2025.1.16.

[2024 가상화폐 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5.1.16.

[중견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신규 채용 계획 못 세워"](#)

조선일보_2025.1.15.

[MZ세대 투자 늘면서 금융 소비자 평균자산 1억 넘어](#)

조선일보_2025.1.16.

국제 · 환경

["트럼프 해롭다"...한국, 24개국 여론조사서 비관 최고](#)

중앙일보_2025.1.15.

[中 작년 경제성장률 5.0%... 성장 목표 달성했다지만 우려 여전](#)

조선일보_2025.1.17.

건강

[초고령화의 그늘 '치매'... 14가지 위험 요소를 줄여라](#)

매일경제_2025.1.14.

[60만원·100만원·200만원... 담배, 돈으로 끊는다](#)

조선일보_2025.1.20.

기독교 · 종교

[기독교인, 성직자에게 바란다 "약자 보호" 88%... "정치 갈등 해소" 37% 그쳐](#)

국민일보_2025.1.16.

[\[2024 종교인식조사\] 종교 진리와 가치에 대한 인식, 종교의 개인적, 사회적 의미](#)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5.1.15.

[각자도생 아닌 따뜻한 소그룹에 길 있다](#)

한국기독교공보_2025.1.13.

["개신교 신뢰도 최하위 ... '지나친 전도'와 '부패', '차별과 혐오 발언'이 원인"](#)

기독교연합신문_2025.1.7.

후원

후원 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경동교회, 곁에있는교회, 고현교회, 구파발교회, 과천교회, 광주금광교회, 광주다일교회, 광주무돌교회, 광주벤엘교회, 광주서남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남송교회, 노량진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평강교회, 대덕교회, 대전도안교회, 대전대흥침례교회, 대전선창교회, 대전은평교회, 대신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춘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라이트하우스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묘동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더교회, 밀양남부교회, 범어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당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남제일교회, 수원성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수원화산교회, 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양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세종선한목자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제일장로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광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이리신광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조암제일교회, 조양중앙교회, 주가행교회, 주님의 교회, 주안장로교회, 중동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목동),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참사랑교회, 충신교회, 충현교회, 창동염광교회, 창일교회, 풍성교회, 포도원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밭제일교회, 한소망교회, 할렐루야교회, 해전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후원 기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IB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성서유니온,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한국성서유니온, 한국IFCJ 가정의힘, 한목회, (재)한빛누리, CBMC광주지식포럼, CBMC여수비지니스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후원 기업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남촌레저개발(주), 메가리서치, (주)소프트자이온, (주)시스코프, 신대종합모터스,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치움, (주)하츠(주)벽산, 하은커넥터(주) (가나다 순)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신규 후원

주가행교회(담임목사 최기은), 신양교회(담임목사 정해우), 상당교회(담임목사 안광복), 주은영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일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후원 방법 (국내)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 후원 방법 (해외) <

외국에서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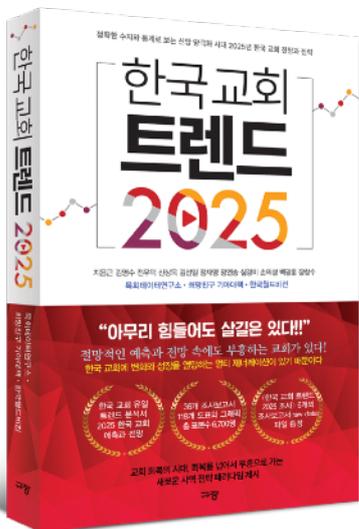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르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책 구입 안내

목회데이터연구소는 한국 교회 최초의 트렌드 분석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3'를 출간한 이후,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한국교회 트렌드 2025'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 소개 동영상

책 구입 안내

목회데이터연구소

제2차 목회데이터포럼, '목회자의 노후 준비 실태와 제안'

목회데이터포럼은 한국교회에 중요한 이슈를 연구하여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독자적으로 발표하는 포럼입니다.

- 1) 주제 : 목회자의 노후 준비 실태와 제안
- 2) 일시 : 2025년 1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3시 30분
- 3) 장소 : 연동교회 가나의집 4층 아가페홀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37)
- 4) 주요 내용

내용	발표자
1. 목회자의 노후 준비 실태와 인식 조사 결과 발표	백광훈 원장 (문화선교연구원)
2. 100세 시대 목회자 은퇴 준비 제안과 절세 전략	김남순 소장 (미래희망가정경제연구소)

*실시간 온라인 중계 예정이며 현장 참석도 가능합니다.

제2차 목회데이터포럼
목회자의 노후 준비
실태와 제안

2025.01.24.(금) 오후 2~3시 30분
연동교회 가나의 집 4층 아가페홀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37)

목회데이터연구소
MINISTRY DATA INSTITUTE

현장 참석 신청



연구소 소식

- 2024년 작년 한해 동안의 <넘버즈>를 모아 엮은, <2024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 VOL.6>를 출판하였습니다. 책 출판을 위해 재정 후원해 주신 한소망교회(원로목사 류영모, 위임목사 최봉규)에 감사드립니다.
- 후원자에게 책을 발송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은 연구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2-322-0726)

휴간 안내

- 다음주(1월 28일)는 설 연휴로 [넘버즈]를 한 주 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